

16/05/08(주) 주일예배 / 제목 :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잠23:22~26) p.937

(22) 너를 낳은 아버지께 청중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23)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24)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25)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26) 내 아들이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

들어가는 말 / 오늘도 이렇게 주님 앞에 나오신 여러분에게 하나님의 신령한 **은혜**와 **능력**과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은 잠언 23장 22절부터 26절 말씀을 가지고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라는 제목으로 함께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서론 / 5월은 가정의 달로 지키는데 오늘은 어버이날이면서 교회력으로도 어버이주일입니다. 이 어버이 날에 우리 카네이션을 달아 들이는데 **카네이션**을 아십니까? 지금으로부터 106년전 1910년 미국 버지니아주의 웨스터 마을에 '안나 자이비스'라는 소녀의 어머니가 살고 있었습니다. 그분은 26년간 주일학교 선생님이로 학생들을 가르치며 사랑으로 열심히 봉사하다가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러자 주일학교에서 배웠던 제자들이 '추모식'을 해 주었는데 '안나 자이비스'는 오신 손님들에게 무엇을 해 줄까 생각하다 생전에 어머니가 좋아하시던 '카네이션'을 선물하기로 했는데 이것이 유래가 되었습니다. '부모님이 살아계시면 부모님께는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리고, 부모님이 안계시면 자녀가 흰 카네이션을 달아야 했습니다.' 그래서 우리도 오늘 이런 유래에 따라서 부모님들께 빨간 카네이션을 달아드린 것입니다.

그리고 **어버이주일** 아십니까? 미국의 어느 시골 마을에 한 여인이 외아들과 함께 살고 있었는데 이 여인은 낮에는 양계를 했고 밤에는 설탕뜨질을 해서 아들의 등록금을 준비했습니다. 아들은 어머니의 고생하는 은혜를 잊지 않기 위해 부지런히 공부하였으며 고등학교를 수석으로 졸업하고 대통령상을 받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머니에게는 졸업식에 입고 갈 변변한 옷이 하나 없었습니다.

아들의 졸업식에 어머니도 당연히 참석을 해야 하지만 자기의 누추한 모습 때문에 아들이 민망해 할까봐 걱정이 되어 아들에게 급한 일이 생겨서 못가겠다고 했습니다. 그러자 아들이 울면서 어머니가 참석하지 않은 졸업식은 아무 의미가 없다고 하면서 꼭 참석해 달라고 했습니다. 울며 매달리는 아들을 뿌리칠 수가 없어서 어머니는 가겠다는 약속을 했습니다. 드디어 졸업식이 되었습니다.

아들은 전 학생들을 대표해서 멋진 연설을 했습니다. 그리고 대통령의 이름이 새겨진 금메달을 목에 걸게 되었습니다. 많은 박수를 받으며 그는 단상에서 내려 왔습니다. 그리고는 한쪽 구석에 아무의 눈에도 띄지 않기를 바라는 듯이 앉아 있는 그의 어머니에게로 달려갔습니다. 그는 그의 어머니 앞에 서서는 자기 목에 걸려 있는 금메달을 벗었습니다. 그리고는 그것을 그의 어머니의 목에 걸어주면서 이렇게 말했습니다.

“어머니, 감사합니다. 어머니가 아니셨으면 제가 어떻게 오늘의 이 영광을 누릴 수 있었겠습니까?” 그러면서 모든 공을 어머니에게 돌렸습니다. 이후에 아들은 더 열심히 공부하여 미국의 28대 대통령이 되었습니다. 그

가 바로 ~~윌슨~~(Woodrow Wilson) 대통령입니다. 그는 자녀들의 가슴속에 어머니의 사랑을 불일 듯 일게 하고 싶었습니다. 그래서 1914년 상하원의원들의 동의를 얻어 5월 둘째 주일을 어머니 날로 정했습니다. 바로 이것이 어버이날의 시작이 되었습니다.

우리 민족은 전통적으로 동방예의지국으로 불리면서 경로사상이 강한 민족이었습니다. 그래서 노인은 가정과 사회의 어른으로서 존경을 받았습니다. 그런데 근래에 들어오면서 갑작스러운 사회변혁이 일어나게 되어 부작용도 많아졌습니다. 그중의 하나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노인들의 어른으로서의 존경과 가치를 잃어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제는 노인들이 권위와 존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소외와 망각의 자리로 전락되어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십계명을 보면 제 5계명에 "네 부모를 공경하라" 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십계명은 열 가지 계명으로서 1~4계명까지는 '사람이 하나님을 섬기는 계명'이고, 5~10계명까지는 '사람이 사람과의 관계에서 지켜야 할 계명'인데 이중 가장 크고 첫 째 되는 계명이 '네 부모를 공경하라'인 것입니다. 그러기에 에베소서 6장 2절과 3절에 (엡6:2~3) "네 아버지와 어머니를 공경하라. 이것은 약속이 있는 첫 계명이니 이로써 네가 잘되고 땅에서 장수하라."고 말씀하신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해도 되고 안해도 되는 것이 아닌 반드시 우리가 해야 할 일입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몇년 전에 서울대에서 부모가 몇살까지 살면 좋겠느냐? 고 설문조사를 했더니 그 결과가 65,4세였다."는 이야기가 있었습니다. 이 설문조사의 결과는 우리 사회의 단면을 들여다볼 수 있게 하는 하나의 사례입니다.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그래도 한국의 똑똑하다는 젊은이들의 생각에 부모 도움으로 교육받고 결혼하면 더 이상 부모는 필요없다는 생각입니다.

이들에게 있어서 부모의 역할은 거기까지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전혀 기독교적이거나 성경적인 것이나 복음적인 것이 아닙니다. 왜냐하면 성경에서는 "너 낳은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라"고 했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우리의 늙은 아버지와 어머니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할 수 있겠습니까? 오늘 본문에서는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방법 3가지를 제시하고 있습니다. 오늘 어버이주일을 맞이하여 이 세 가지 것을 나누면서 함께 은혜를 받고자 합니다.

본문 /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 청중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22절)

오늘 본문 22절을 보면 (22절) "너를 낳은 아비에게 청중하고 네 늙은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지니라" 고 되어 있습니다. 청중한다는 말은 말씀을 잘 듣고 좇는 것입니다. '청중'에서 '청(聽)은 듣는 것'이고 '중(從)은 좇아 행하는 것'입니다. 이 둘이 함께 결합되어 만들어진 단어가 청중입니다. 그래서 청중에는 듣는 것과 행하는 것이 반드시 있어야 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먼저 들어야 들은 것을 행할 수 있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듣는 것에 문제가 생기면 행하는 것에도 문제가 생기기 때문입니다.

그러면 왜 청중해야 합니까? 부모님이 자녀보다 지혜가 있고 뛰어난 지식이 있기 때문일까요? 아닙니다. 부모에게 청중해야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가 있겠지만 오늘 본문 말씀에서는 "너를 낳았다"는 생물학적인 이유 하나만 가지고서 청중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다른 이유를 기술하지 않았습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이것 저것 따질 것이 없다는 것입니다. 너의 존재가 이 땅에 존재할 수 있었던 것은 전적으로 너를 낳아주신 분이 있어서 가능했다는 사실입니다.

누구도 하늘에서 떨어지거나 땅에서 솟아난 사람은 없습니다. 그래서 부모에게 청중하라는 것은 하나님의 명령입니다. 어버이에게 청중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 아닙니다. 결코 불가능한 일도 아니고 시간이나 돈이 드는 일도 아닙니다. 그러나 청중하면 큰 힘과 복이 됩니다. 어버이에게 청중하는 사람이 하나님 말씀에 반드시 청중하게 됩니다. 내가 어버이의 말씀에 청중해야 자녀들도 따라서 청중하게 됩니다. 청중은 효도이며 최고의 복입니다.

그리고 22절 후반절을 보시면 어미를 경히 여기지 말라고 하였는데 이는 부모를 가볍게 여기거나 무시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이 말씀은 부모를 공경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젊을 때에는 자식들의 도움이 필요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부모님이 자식을 위해 온갖 것을 다 희생하십니다. 그러다가 세월이 많이 흘러 자식의 도움이 필요할 때가 오는 데, 그때에는 힘이 없는 늙은 때입니다.

그런데 많은 자녀들이 부모님이 힘이 있을 때에는 무언가 얻으려고 잘 대해드리다가, 부모가 늙고 힘이 없어지면 더욱 더 도와드리는 것이 아니라, 반대로 무시하는 경향이 있습니다. 우리를 낳아 주시고 온갖 눈물과 희생으로 우리를 여기까지 오게 하신 부모님이 이제는 늙었다고 경히 여기는 것은 하나님을 거역하는 것과 같습니다. 요즘에는 노인 학대의 문제가 사회적인 문제가 되고 있습니다.

어느 기관이 조사한 노인들을 대상으로 한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응답 노인의 8.2% 무려 10%에 가까운 노인들이 그들의 자녀 및 가족원으로부터 학대받고 있다는 통계가 나와 있습니다. 사도 바울은 디모데전서 5장 8절에서 (딤후5:8) "누구든지 자기 친족 특히 자기 가족을 돌보지 아니하면 믿음을 배반한 자요 불신자보다 더 악한 자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서 말하는 "자기 친족"은 일가친지를 가리키고, "자기 가족"은 직계 가족을 가리킵니다. 그러니까 자기 부모를 돌보지 아니하면 불신자보다도 더 악한 자라는 것입니다.

물론 늙으신 부모님을 모신다는 것이 쉽지는 않습니다. 늙으면 깜빡깜빡해져서 한 말을 또하고 또하고 지겹도록 반복하실 때가 있습니다. 또한 늙으면 몸이 둔해져서 조금만 넘어져도 그대로 주저앉고 다치기 일쑤입니다. 그뿐만이 아닙니다. 늙으면 그 곱던 얼굴과 피부도 추해지고 심지어는 몸에서 냄새가 나서 함께 있기가 거부할 때도 있습니다. 게다가 치매라도 생기게 되면 노망까지 들어서 추태를 보아야만 할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설령 부모가 이렇게 될지라도 경히 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이런 현상은 사람이 나빠져서 그렇게 된 것이 아니라 그것은 노화현상으로 인한 것이기 때문입니다. 아무리 곱고 곱던 선남선녀도 언젠가는 늙게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노화된 모습은 의도된 것이 아니라 늙어서 망가져가는 모습일 뿐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인생은 언젠가는 예외없이 다 늙게 되어있기 때문에 부모가 늙었다고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경히 여기지 말라는 말씀은 업신여기지 말라는 것입니다.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 청중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2.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23~25절)

23절과 24절을 보십시오. (23~24) “진리를 사되 팔지는 말며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리할지니라 / 의인의 아버지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식을 낳은 자는 그로 말미암아 즐거울 것이니라” 이 말씀의 뜻은 “진리는 사야지 파는 게 아니다. 진리를 잘 되새기고 보존해라, 그리고 지혜와 훈계와 명철도 그렇게 해라. 그런데 그 중에 지혜가 제일 중요하다. 자녀도 지혜로워야 한다. 그래야 진정한 효도를 할 수 있다. 그러므로 의인을 자식으로 둔 부모는 크게 즐거울 것이요, 지혜로운 자녀를 둔 부모도 즐거울 수 있다.” 이런 뜻입니다.

그러면 어떤 자녀가 지혜로운 자녀일까요? 어떤 부모님에게 물었더니 이렇게 대답하더군요. “공부 잘 하는 자녀요!” 예, 공부 정말 중요하지요. 공부 잘 하는 자녀 둔 부모는 언제나 어깨가 으쓱합니다. 그런데 본문이 말씀하는 지혜는 공부가 아닙니다. 물론 공부, 즉 지식도 지혜의 일부입니다. 그러나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그렇게 좁은 의미가 아닙니다. 성경이 말씀하는 지혜는 첫째,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진짜 효도하는 자녀가 되려면 하나님을 잘 믿고 경외하는 지혜로운 자녀가 되는 것입니다.

둘째는 남의 말을 잘 듣는 것입니다. 솔로몬 임금도 하나님께 백성들을 잘 재판할 수 있는 지혜, 열왕기상 3:9에는 ‘듣는 마음을 달라고 간구하지 않습니까? 그래서 진짜 지혜로운 자녀는 하나님 말씀도 잘 듣고, 부모님 말씀도 잘 듣고, 특히 그 앞에 나오는 것처럼 부모님의 훈계도 잘 듣고, 명심하는 자녀입니다. 셋째는 판단능력과 문제를 해결하는 능력을 배양하는 것입니다. 부모님들은 끊임없이 자녀들을 위해 기도하고 자녀에게 어려운 일이 안 생기도록 간구하지만 그래도 자녀에게 위기나 문제가 닥쳐올 수 있습니다.

그럴 때 정말 지혜로운 자녀들은 잘 판단하고 문제를 잘 해결해서 더 이상 부모님 마음에 근심 걱정을 안 끼칩니다. 그런데 어리석은 자녀들은 이 지혜가 부족해서, 판단을 잘못하고, 결정을 잘못하고, 문제를 더 만들어서 부모님 속을 끊임없이 썩히게 됩니다. 그러니 진짜 지혜로워서 하나님을 잘 믿고 어려움도 잘 이겨내서 여러분이 잘 돼야 부모님도 잘 사실 수 있다는 것입니다. 또 지혜로운 자녀는 상황을 잘 살펴서 그때그때 가장 적절한 방법으로 부모님을 대하고 모십니다. 이것이 자녀가 지혜로워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지혜에 대하여 이렇게 말씀합니다. (잠1:7)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식의 근본이거늘 미련한자는 지혜와 훈계를 멸시하느니라” (잠9:10)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요 거룩하신 자를 아는 것이 명철이니라” (잠23:17) “네 마음으로 죄인의 형통을 부러워하지 말고 항상 여호와를 경외하라”고 했습니다. 사랑하는 자녀 여러분, 부모님을 즐겁고 기쁘게 해드리기를 원하십니까? 그렇다면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녀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러면 부모가 즐겁고 기뻐할 것입니다.

믿음의 부모님의 소망은 자녀들이 세상에서 권세와 풍요로운 재물을 소유한 것이 아니라, 자녀가 참된 지혜를 소유하여 여호와를 경외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원합니다. 그런데 간혹 성도들 가운데서도 학교공부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하고 하나님을 경외하는 신앙생활을 소홀히 여기는 분들이 있습니다. 하지만 참된 성도라면

솔로몬이 기대하는 것처럼 자녀들이 참된 지혜를 알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에 보람을 얻고 기쁨을 누리야 할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믿음의 자녀는 부모님에게 기쁨이 됩니다. 그러나 불신앙의 자녀는 부모님에게 눈물과 한숨이 될 것입니다. 오늘 이 말씀을 통하여 모든 자녀들이 믿음의 자녀들이 다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진리를 사기만 하고 팔지를 얹으면 그것이 곧 부모를 즐겁게 하며 어미를 기쁘게 하는 것이 됩니다. 25절을 보십시오.

(25절) “네 부모를 즐겁게 하며 너를 낳은 어미를 기쁘게 하라”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 청중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2.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3.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해야 합니다. (26절)

26절에 보면 **(26절)** “내 아들이야 네 마음을 내게 주며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니라”고 했습니다. 여기에 두 가지가 나옵니다. “내 아들이야, 네 마음을 내게 달라” 또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내 아들이야, 네 마음을 내게 달라.” 이 말씀처럼 부모가 우리 자녀들에게 원하는 것은 자식의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연로하실 때 물질로 봉양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것보다 더 중요한 것은 부모님을 즐겁게 하고, 부모님의 마음을 기쁘게 해 드릴 수 있는 마음을 주어야 된다는 것입니다.

효도의 본질은 마음입니다. 아무리 물질적으로 잘 해 드리다 할지라도 마음이 멀어지면 그것은 효도가 아닙니다. 부모 자식 간에 마음이 멀어지는 것보다 더 섭섭하고 외로운 것이 부모에겐 없는 것입니다. 오늘날 생활비는 꼭 꼭 보내드리면서도 마음에서 부모님을 지워 버린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에서 항상 부모님을 떠나보내지 않는 것입니다. 진정한 효도는 내 마음을 부모님께 드리는 것입니다.

그리고 “네 눈으로 내 길을 즐거워할지어다”라고 했습니다. 이 말은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하라는 말입니다.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바라보십시오. 어떻게 보면 성공한 자녀의 입장에서 보면 너무 비천한 인생을 살아온 부모님도 계십니다. 그러나 그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인정해 주십시오. 인생은 아무리 열심히 살았다 할지라도 아쉬움이 있고 후회가 있는 것입니다. 실수가 없는 인생은 없습니다.

믿음의 사람인 **노아**도 포도주에 취해 자식 앞에서 실수를 했습니다. 노아가 어떤 사람입니까? 노아는 의로운 사람이요 당시에 완전한 사람이요 하나님과 동행한 사람입니다. 하지만 그도 자식들 앞에서 실수를 범하지 않았습니까? 그러면 왜 우리의 부모님에게는 실수가 없겠어요? 이 세상에 자녀 앞에서 완벽할 수 있는 부모는 아무도 없습니다. 우리 부모님의 삶에도 아쉬움이 있고 실수도 있고 후회도 있는 것입니다. 하지만 부모는 자식을 통해서 자기가 살아온 인생에 대하여 인정받고자 원하는 마음이 있습니다. 참 훌륭하게 살아 오셨다는 인정을 받고 싶어 하십니다.

미국의 제 16대 대통령이었던 링컨 아버지는 구두를 수선하는 구두수선공이었습니다. 링컨 자신도 초등학교를 중퇴하였습니다. 이러한 가정의 링컨이 대통령이 되니까 귀족들이 못마땅했습니다. 대통령이 되고 처음으

로 상원에 나가서 연설을 할 때, 어느 상원의원이 “당신 같이 무식한 사람을 대통령으로 모시게 된 것이 우리의 다시없는 불행”이라고 모욕을 주었습니다. 그러면서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당신의 아버지는 구두 수선하는 사람이요, 이런 천한 사람의 아들을 우리가 대통령으로 모시게 됐다”고 하면서 구두를 벗어서 들고 “이 구두도 당신 아버지가 만들어 주신 것일지 모른다”고 빈정거렸습니다.

그때 링컨은 이렇게 말했습니다. “오랫동안 잊고 있었는데 아버지를 기억나게 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저는 아버지를 자랑스럽게 생각합니다. 우리 아버지는 직업에 충실했고, 구두를 잘 만드는 분이셨습니다. 내가 어깨 너머로 배운바가 있으니 당신 구두가 고장 나거든 가져오시면 내가 수리해 드리겠습니다.” 그러자 모든 사람이 일어나 기립박수를 보냈습니다. 얼마나 훌륭합니까? 부모님의 직업을 자랑스럽게 여기고 그 분이 살아오신 그 길이 내 명예요 영광이 될 수 있는 그 마음을 가지는 것 이것이 진정한 효도입니다. 그러기에 본문은 말씀합니다. "너의 마음을 내게 주라" "너의 마음을 내게 주라"

즉 부모님은 우리에게 원하는 것이 물질이 아닙니다. 그 무엇도 아닙니다. 마음입니다. 부모님이 살아 오신 길을 즐거워하는 마음인 것입니다. 그리고 그 길을 즐거워하고 그 길을 가주면 좋겠다는 것임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이것이 효도입니다. 자기의 부모를 사랑할 수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죄를 지은 일이 아니라면, 부모님의 직업, 부모님의 선택, 부모님의 삶, 부모님이 살아온 생애 대하여 “잘 하셨습니다. 훌륭하셨습니다. 그 하시던 일을 나는 존경합니다.”라고 인정하는 것이 부모를 기쁘게 하는 것입니다.

결론 / 이제 말씀을 맺고자 합니다. 성도 여러분! 이 세상에는 늙었다는 사실 하나로 즐겁고 기쁜 것을 잃어버리고 사는 부모들이 많습니다. 자녀가 부모가 늙었다고 부모님의 말씀에 청종하지 않고, 부모가 늙었다고 경히 여기고, 하나님이 주시는 지혜를 사지 아니해서 지혜로운 자녀가 되지 못할 때에 부모의 눈에는 피눈물을 흘릴 수 밖에 없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세상 풍조에 떠밀려가지 말고 오직 주의 말씀을 따라 축복이 약속된 하나님의 말씀대로 늙은 부모들을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여야 합니다. 그것이 아버지날을 맞이하는 자녀들의 도리인 것입니다.

결론핵심 :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여 부모를 공경하는 사람이 됩시다.

요약정리 / 부모를 즐겁게 하고 기쁘게 하는 방법은 무엇인가?

1. 청종하고 경히 여기지 말아야 합니다.
2. 지혜로운 자녀가 되어야 합니다.
3. 부모님이 살아온 인생의 길을 보고 그대로 받아들이고 즐거워해야 합니다.